**[노틸러스효성] 합격 자기소개서**

**직무 : Computation clerk**

**1. 자신의 성장과정과 학창시절에 대해 기술하여 주십시오.**

**-전역, 새로운 시작-**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군대를 가기 전 까지는 정말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대학교 입학 후에도 갑자기 주어진 자유시간을 활용하지 못했고 새로운 활동을 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보다는 동네친구들과 어울려 놀았습니다. 하지만 입대 후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 하면서 제가 그 동안 시간낭비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전역 후 계획을 짜는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급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레 리더를 하게 되어 리더십도 생기고 자신감도 늘었습니다.

전역 후 에는 여러 아르바이트도 하고 각종 캠프,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예전의 저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가요제 참가, 씨름 대회, 마라톤등 도전도 했습니다. '삼인행 필유아사'라는 말이 있는데, 군대와 이런 경험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자연스레 다양한 스승을 만났습니다. 스승을 계속 만나고 싶어 지금은 찬우리 독서클럽이라는 독서모임을 직접 만들어서 운영 중입니다. 독서하는 습관뿐 아니라 책에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 그리고 토론을 하면서 식견을 넓히고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은지 등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배우고 있습니다.

**2. 지원 직무 관련 자신이 갖춘 역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수강과목, 교내외 활동, 남다른 지식이나 재능 등)**

**-소통능력과 IoT프로젝트 경험-**

노틸러스 효성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금융 솔루션을 기반으로 세계 시장을 향해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에서, 세계 시장을 향해 뻗어 나가는데서 그리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소통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소통능력을 리더십 캠프, 두드림 등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들을 이수하면서 키웠고, 지금은 독서토론모임을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키우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저의 여러 프로젝트 경험이 직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종합설계프로젝트 1, 2 과목에서 라즈베리파이와 아두이노를 사용했었는데, 매일 개발하던 환경이 아니어서 다른 친구들은 하길 꺼려했지만 저는 도전하였고 주인의식과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책임감 있게 해내었습니다. 이런 신기술,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도전정신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긍정적인 마인드라면 무슨 일이든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라즈베리파이, 아두이노 센서들을 사용하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융합, 이에 맞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경험들이 저의 역량 개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3. 지원 사업부 또는 직무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본인이 지원하는 사업부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금융 솔루션은 화폐가 존재하는 한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다-**

제가 컴퓨터학부라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경제가 없는 인간사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경제사회의 근간은 바로 화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화폐를 취급하는 은행도 절대 망할 일은 당연히 없고, 오히려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이 은행과 은행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솔루션을 개발하는 노틸러스 효성의 전망도 밝고 비전도 있다고 생각했고, 이 기술과 경영역량을 바탕으로 결국에는 인류의 보다 나은 생활을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노틸러스 효성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틸러스 효성은 국내를 넘어서 세계 시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혁신과 고객을 생각하는 마음과 이 두 가지를 기본으로 한 연구개발입니다. 지금까지는 아주 잘 해왔기 때문에 최고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 마음가짐을 잃지 않고 연구개발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급변하는 사회에서 적응하고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에 대한 인력, 자본 등 투자를 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개발이야 말로 회사 성장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어렸을 때 부모님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라고 말씀하셨고, 저의 성격도 원래 낙천적인 편이라 주변으로부터 긍정적이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공군이었지만 육, 해, 공군이 같이 있는 부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육군이었고, 간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보니 공군 휴가규정에 대해서 잘 알지 못 했습니다. 간부들은 공군병사들이 너무 많이 나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휴가 붙여 쓰는 것을 제한하기 시작했고, 그 동안 참았거나 못 쓴 휴가는 시기가 지났다고 다 잘라버렸습니다. 병사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도 좋은 경험이다. 짧게 나가는 김에 서울에 있는 축제와 명소들을 즐기고 와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의 얘기를 듣더니 전우들의 흥분은 좀 가라앉았고, 차분하게 얘기하여 문제는 잘 해결되었습니다.

군대 같은 상명하복의 문화에서 흥분한 채로 얘기를 했다면 결과가 더 나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긍정적인 사고가 주변인들에게도 영향을 주었고, 잘 해결되는 데에 한 몫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대학교 전공과목을 충실히 이수,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취득-**

먼저 저는 컴퓨터학부의 학생으로서 전공과목을 충실히 이수하였습니다. 기본적인 c언어는 물론,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에서 심화된 내용을 공부하였고, 시스템프로그래밍이라는 강의에서는 리눅스 환경에서 프로그래밍을 하였고, 서버 클라이언트 통신 프로그래밍에 대해서도 공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자바,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공학 등에서 프로그래머로서의 기본을 다졌고, 이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정보처리기사 자격증도 취득하였습니다.

**-열린마음, 창의력-**

혁신 리더십에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는 창의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 강연에서 들은 내용인데 '창의적인 생각을 위해서는 통찰력(insight)가 중요하고, 이 insight는 outsight로 부터 온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에 감명을 받아서 저는 독서를 꾸준히 하고 있고 앞에서 말했듯이 다양한 경험을 했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소통능력-**

고객을 먼저 생각하고, 조직내 신뢰의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능력이 저는 소통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리더십 캠프, 두드림 등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들을 이수하면서 강연을 듣고 직접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키웠고, 지금은 독서토론모임을 만들어서 매주 사람들과 토론을 하며 키우고 있습니다.

**-존중과 배려-**

그리고 이렇게 모임을 하고 사람을 만나면서 존중과 배려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읽고, 그리고 직접 만나 행동에 옮기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름을 기억해주고, 얘기를 잘 들어주는 등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인상을 좋게 남길 수 있었고 쉽게 친해지는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제 이름을 기억해주거나,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호응을 잘해주면 기분이 좋았고 좋은 인상이 남아있습니다.

**-IoT프로젝트 경험-**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저의 여러 프로젝트 경험이 직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종합 설계 프로젝트 1, 2 과목에서 라즈베리파이와 아두이노를 사용했었는데, 매일 개발하던 환경이 아니어서 다른 친구들은 하길 꺼려했지만 저는 도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없는 도전과 열정으로 책임감 있게 해내었습니다.

**1.영유아용 스마트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 - 라즈베리파이**

이 프로젝트에서 저는 라즈베리파이 관련 업무를 맡았었습니다. 라즈베리파이 카메라로 아기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여주었고 온, 습도 센서 등을 이용하여 아기의 상태, 아기가 있는 장소의 상태 등을 체크하였고 그 데이터에 따라 적절히 반응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2.스마트 클래스 룸 - 아두이노**

스마트 클래스 룸 프로젝트는 교실에 아두이노 센서를 이용하여 사람이 카운트하여, 몇 명 있는지 혹은 아무도 없는지 체크하여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신기술,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도전정신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면 무슨 일이든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리더십, 조직리더십, 혁신리더십을 실현하는 리더가 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